'대한민국 무형유산대전' 개최

30일~10월 2일까지 무형유산 향유 '헤리캐이션' 마련

국립무형유산원서 다양한 공연 · 전시 · 체험 등도 진행

'2022 대한민국 무형유산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이경훈)이 주최하고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김삼진)이 주관한다.

이에 따르면 '2022 대한민국 무형유산대전'은 전통문화 활성화와 무형문화재 가치 확산을 위해 2016년 '대한민국 무형문화재대전'이란 명칭으로 시작, 올해로 6회차를 맞는다. 특히 올해는 공연과 전시, 체험과 여행을 통해 다각적으로 무형유산을 향유하며 주말을 보낼 수 있는 '헤리캐이션(HERICATION)'이 준비돼 있다.

헤리캐이션은 무형유산의 영문 헤리티지(HERItage)와 휴가의 베캐이션(vaCATION)을 조합해 만든 신조어다.

개최 지역의 특장점을 살려 기획된 '전라도 한옥마을행 꽃가마' 당일 버스투어 패키지는 전주한옥마을 먹거리 투어, 완주 오성한옥마을 소양 아원고택 등지 자유관광 그리고 무형유산대전의 기획공연과 보유자 작품전 관람으로 구성됐다.

투어패키지는 9월 30일, 10월 1일 오전 8시 서울에서 출발하며, 참가비는 1인 3만 5천원이다.

특히, 이번 무형유산대전은 다채로운 공연과, 다양한 전시 그리고 체험도 준비됐다.

모든 공연은 사전예약을 통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행사 관련 상세정보 확인과 사전예약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이나 전화(02-580-3260)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2022 대한민국 무형유산대전' 포스터

프랑스서 만나는 한국의 나전

국립무형유산원, 주프랑스한국문화원서 전시 개최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이경훈)은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주프랑스한국문화원에서 '나전, 시대를 초월한 빛, 한국의 나전을 만나다'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전시회가 일부 관람객에게 제한된 장소의 한계성을 벗어나, 세계 각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과 프랑스 국민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르면 이 전시는 예술감독 안강은이 맡았으며, 조선시대 마지막 나전칠기 장인으로 알려진 전성규의 작품을 시작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7명의 전통 작품 45점과, 현대 작가 김성수 등 5명의 예술품 14점이 선보인다.

아울러 부대행사로 '한국 나전 보석함 만들기' 체험이 열린다.

자세한 정보는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www.nihc.go.kr)이나 주프랑스한국문화원(www.coree-culture.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경훈 원장은 "이번 나전 전시와 체험행사를 통해 프랑스 국민이 한국 나전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완판본과 떠나는 전주 서포 여행'

완판본문화관, 전주 옛 서점 서포 만나는 기획 전시

완판본문화관에서는 2022 전주독서대전과 연계해 '완판본과 떠나는 전주 서포 여행'이라는 주제로 전주의 옛 서점인 서포를 만나는 기획 전시를 선보인다고 전했다. 오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완판본문화관 전시실에서 개최된다.

이에 따르면 방각본(坊刻本)은 '조선시대에 민간의 출판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출판한 책'을 말한다. 방각본은 주로 아동 교육용 서적, 한자 학습, 상례와 제례, 역사 등과 관련된 교양서적과 고전소설을 주로 간행했다. 방각본 출판이 주로 이뤄진 곳은 서울, 전주, 태인(정읍), 안성 등이며, 전주에서 출판한 책을 완판방각본(完板坊刻本)이라고 한다.

방각본은 일찍이 지적 욕구와 문화적 욕구가 강했던 당시 서민 독자층의 기대에 부응해 다양한 분야의 책으로 간행됐다. 이를 통해 일부 계층만 즐길 수 있었던 '독서(讀書)' 문화를 서민 독자들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독서를 원하는 독자들이 책을 구입할 수 있는 곳, 방각본 책을 간행하고 판매하던 곳이 바로 '서포'다.

한편 전시와 연계해 이태영 교수(전북대)를 초청해 '전주 책 완판본, 서포 거리를 읽다'라는 강연도 마련했다. 강연은 10월 1일 오후 4~5시까지 완판본문화관 전시실에서 열린다.

전시와 강연에 관한 문의는 완판본문화관(063-231-2212)으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은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 전북권 'Jeolla 멋-眞' 9월 공연을 시작한다.(사진은 지난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 공연 모습)

전북문화관광재단, 실버마이크 전북권 9월 공연 시작

전북문화관광재단은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 전북권 'Jeolla 멋-眞' 9월 공연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실버마이크 전북권 9월 정규공연은 9월 28일 익산역 동부광장, 9월 29일 김제노인종합복지관, 10월 1일 무주 반딧불시장, 10월 2일 완주 어울림카페에서 각각 진행된다. 각 공연별로 5개 팀이 참가, 악기 연주와 노래, 마술 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한편,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만 60세 이상 실버 세대가 주체적으로 공연 기회를 마련해 국민의 문화권 확대를 위한 사업이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문화사업팀(063-230-7454)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최기우 극작가, '어린이희곡 노잣돈 갚기 프로젝트' 발간

최기우 극작가가 '어린이희곡 노잣돈 갚기 프로젝트'를 냈다. 이는 지난해 가을 '뿡뿡뿡 방귀쟁이 뿡 함마니'을 출간한 이후 일 년 만에 낸 어린이희곡이다.

작가에 따르면 이 작품은 제15회 문학동네어린이문학상 수상작인 김진희 작가의 동명의 동화를 각색했다. 저승사자의 실수로 저승에 간 아이가 이승에 오기 위해 빌린 노잣돈을 갚아 나가는 과정에서 진실한 양심과 우정을 찾는 이야기다.

원작의 줄거리와 인물을 무대극에 맞춰 짜임새 있게 재구성하고, 연극 대본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 극적인 요소를 곳곳에 넣어 한 편의 연극이 눈앞에서 생생히 공연되는 듯한 재미를 느낄 수 있다.

특히 초등 국어 교과서의 독서 능력을 심화하는 '독서 단원'과 대본을 바탕으로 연극을 하는 '연극 단원'을 비롯해 원작을 희곡으로 각색하는 교과 과정과도 연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최기우 작가는 "희곡은 그 자체로 극적 재미와 감동을 주며 무대에 올려져 생생한 재현이 가능한 문학이며, 연극으로 구체화하는 동안 끊임없이 상상력을 발휘하게 하는 생생하게 살아 있는 문학"이라며 "어떤 부분이 지문이 되고, 대사가 되는지, 왜 새로운 인물과 사건이 추가되는지 등 원작과 비교를 통해 장르 간 차이를 짚어 보는 것은 색다른 독서의 즐거움을 안겨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기우 작가는 2000년 전북일보 신춘문예(소설)로 등단한 뒤, 연극 · 창극 · 뮤지컬 · 창작판소리 등 무대극에 집중하며 희곡집 '상봉'과 '춘향꽃이 피었습니다', '은행나무꽃', '달릉개' 등을 펴냈다. 현재 최명희문학관 관장이며, 전주교육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연극'을 강의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민 힐링 음악회 오늘 개최

남원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낸 시민들에게 치유와 힐링의 시간을 선물하기 위해 특별기획한 콘서트를 28일 오후 7시부터 사랑의 광장에서 JTV 전주방송사와 귀랑기획사가 주관하는 '남원시민 힐링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에는 아모르파티 등 수많은 히트곡을 통해 대중들을 만나온 트로트 대모 김연자와 사랑의 밧줄의 김용임과 편승엽, 서지오, 박구윤, 안성훈, 소유미, 금청 등 트로트 인기가수들이 대거 출연해 관객들의 흥을 돋울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콘서트를 통해 코로나19로 상당 기간 문화행사를 누리지 못한 시민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활력을 얻길 바란다"면서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야외에서 자유롭게 음악을 즐기며 힐링하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